서예와 그림으로 보는 아름다운 한글

이호신 작품전 '한글사랑 한글 뜻그림'
백악미술관 전관 3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글서예 작업 '한글 뜻그림' 80점 전시
한글 조형 · 문장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한글 창제 본질 사랑과 나눔 정신 실천
글자의 문자 · 회화성 'Textimage'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62x4cm, 한지에 수묵채색


89x4cm 수묵탁본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인 새로운 양식의 작품전이 열린다. 이호신 화백이 3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한글사랑 한글 뜻그림' 展이다.

이 화백은 한국화가로서 자연과 생태, 문화유산, 정겨운 마을 등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세계를 그려왔다.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해 '생활산수화' 라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이 땅의 자연과 문화 현장을 그려왔다. 그런 그가 지난해 10월 작품집 〈화가의 한글사랑〉을 출간했다. 책은 한글서예 이미지화 작업인 '한글 뜻그림' 을 모은 책이다. 책 속의 '한글 뜻그림' 이란 화가의 시각에서 한글서예를 표현한 '그림이면서 서예이고, 서예이면서 그림' 인 새로운 예술양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집 〈화가의 한글사랑〉에 실렸던 작품과 신작을 모아 총 80점을 전시한다.

새로운 양식의 '한글 뜻그림' 은 이 화백의 화가적 감성과 모국어에 대한 인문학적 사랑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른바 한글서예에 대한 새 인식과 창신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이 지닌 조형성과 문장을 아름다운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한글에 담긴 내용을 이미지로 극대화해 시각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즉 문자와 회화의 새로운 영역을 꿈꾼 것이며,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언어로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 화백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한글을 '무명을 밝히는 세상의 빛' 이라고 규정하고 표음문자인 한글로 언어가 함축한 뜻을 표현하는 방법에 천착한 결과 마침내 한글의 우수성을 아름다운 조형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 선조들의 언어표현이던 문장(시), 글씨(서), 그림(화)과 민화 문자도(文子圖)의 재발견인 것이다. 기존의 한글서예나 문인화, 시화와는 또 다른 조형방법으로서 이 화백은 '한글 뜻그림' 으로 명명했다.

이 화백은 자연과 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을 '한글 뜻그림' 에 담아 한글 창제의 본질인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 글씨체에 변화를 주거나 구성을 달리하고, 주제에 맞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다채롭게 표현했으며,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화면 도구는 틀을 깨는 파격을 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 먹과 붓은 물론 화려한 색감과 크레용, 탁본기법 등을 활용해 끝없이 일탈한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의미 그 자체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공감하게 만든다. 보고 느끼고 나누는 글씨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일면 글자에서 그림으로 회귀하는 작업이다. 글자를 넘어 필획 자체가 그림이 돼 글자가 그림의 정체로 각인된다.

오늘날은 글자는 대부분 키보드 작업을 통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기계시대의 문자는 획일화, 규격화가 미덕인 것이다. 글자를 빨리 쓸지 천천히 쓸지, 크게 쓸지 작게 쓸지, 꾹꾹 눌러 쓸지 설렁설렁 쓸지, 고민하는 수고로움은 필요없다. 오로지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빨리 기록 전달하고 저장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필의 압력이나 속도, 먹의 농담이나 윤갈, 획의 굵기나 장단이 쓴 사람의 마음, 정신, 몸의 상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서(書)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대에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기계시대 문자문명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완성된 미니멀 중의 미니멀로, 극도로 추상화된 문자인 한글을 다시 상형문자 이전보다 더 이전의 그림으로 거슬러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으로 달리고, 초경량화 되어야 하는 디지털시대 문자지도(文子之道)의 전복이자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화백의 한글 그림은 모든 언어의 근본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역행이 아닌 원점회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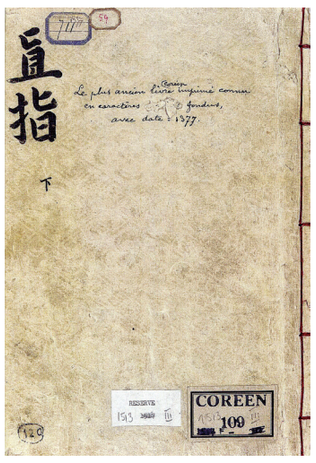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 뜻그림' 에는 소리와 색깔까지 있다는 것이다. 작품 중 '불' 이라는 글자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지리산 뱀사골의 뱀이 내달리고 선녀들이 흔비백산하며 맨몸으로 하늘을 오르는 모습이 연상된다.

또 소리와 함께 '한글 뜻그림' 을 완성하는 것은 색깔이다. 이 화백은 한글을 문자 이전에 글자 하나, 음소 하나가 가진 색깔과 무늬와 결을 느끼는 대로 색칠하고 필획해 낸다. 농담과 윤갈로 무한대의 색깔과 마티에르까지 일체로 머금고 있는 먹, 묵의 모습을 검돌의 필획에서 다시금 확인한다.

이 화백의 '한글 뜻그림' 은 글의 내용 · 주제에 따라 글자꼴은 물론 그 이전에 색깔과 필획이 소리와 말의 파동으로 일체가 되어 마음 가는 대로 형상화된다. 이를 통한 글자는 기존에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징을 창출한다. 시대사회의 변화를 문자의 내용과 조형, 텍스트와 이미지로 하나가 되게 담아내고 있다. 글자의 새로운 문자성과 회화성을 텍스티미지(Textimage)로 획득해 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계시대 '문자도(文子圖)' 내지는 '그림시' 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전시문의 (02)734-4205.

〈직지심체요절〉 50년 만에 대중 공개


〈직지〉 하권 표지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반공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이면서 선(禪)의 요체를 담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50년 만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직지(1377)〉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누리집에 의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4월 12일(현지시간)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직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인쇄술의 발전 역사와 성공의 열쇠를 추적할 것"이라며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지〉는 50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와 일반에 공개된다.

〈직지〉는 고려시대 1377년(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다. 상 · 하 두 권으로 구성된 〈직지〉는 백운 화상이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말씀 중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직지〉의 '直指' 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뜻을 담고 있다.

〈직지〉는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직지〉는 197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최근까지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과 이번 전시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재단은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博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 익산 편 공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15일 온라인 영상 콘텐츠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 익산 편을 공개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번 익산 편에서는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하여 '왕궁리 오층석탑', '고도리 석불입상' 등 익산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반짝이는 야경과 함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의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 다채로운 영상미를 볼 수 있다.

이번 익산 문화유산 편은 앞서 공개된 유리건판 프리뷰 영상과 5대 궁궐 시리즈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후 공주와 부여 편을 제작 · 공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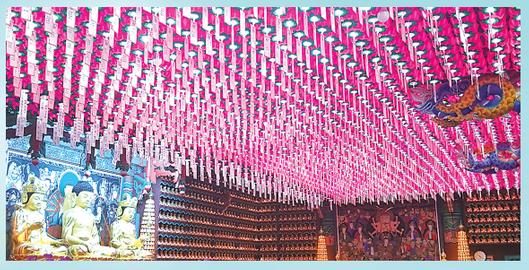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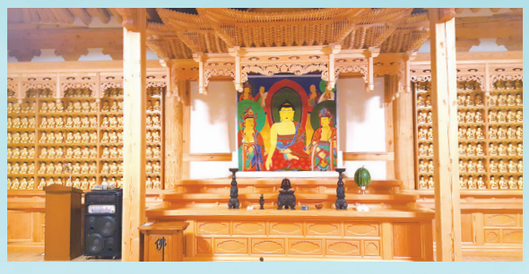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